

## 4.11 선택 D-13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타지역 출마후보 25명

# “지역민 성원이 힘... 꼭 이겨 보답 하겠다”

### 서울 16명, 경기·인천 7명, 부산 2명 갈수록 후보 줄어 지역정치 위상 반영

4·11 총선에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광주 정신을 믿기를 삼아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가 최근 4·11 총선 전국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는 모두 25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새누리당 8명 ▲통합진보당 2명 ▲자유선진당 1명 등의 순이었다.

선거구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6명 ▲부산 2명 ▲인천 1명 등의 순이었다.

각 후보들은 당의 정책 기조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면서 4·11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들은 각 지역구 현안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서민과의 소통, 신뢰의 정치,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사·도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자랑삼 삼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7월 ‘호남 불출마’를 선언한

광지를 바탕으로 고흥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두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그간 새누리당 쇠퇴와 리더로서 서민자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일부 후보들은 그동안 총선 때면

호남을 제외한 서울·경기 등 전국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30명 이상 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른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대해선 광주·전남이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탈(脫) 호남’ 성향을 보이면서 광주·전남지

역 출신 정치인들이 공천받기가 어려워진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천 후보(서울 성동 갑)는 “이번 총선 후보자 중 수도권 등 비호남 선거구에 나서는 광주·전남 출신 후보가 너무 적다”며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줄어드는 것은 지역에도 손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선거벽보 마지막 점검

광주 동구 총장동사무소 직원들이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 동사무소에서 동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요동치는 광주 서구

### 갑, 시의원 등 탈당 “조영택 지지” 을, 서대석 후보사퇴 “오병윤 지지”

####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총선 후보들은 29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10일 자정까지 13일간의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표심 잡기’를 위한 혈투를 벌인다. 여야 각 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29일 출정식 또는 필승 결의대회 등을 갖고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전남 유일한 야권연대 지역이자 새누리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 서구 을과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 서구 갑의 선거판도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 을의 경우 야권연대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했던 서대석 후보가 28일 사퇴하고, 야권연대 후보인 오병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따라 선거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대석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후보 사퇴와 함께 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서 후보의 사퇴는 최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약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서구 갑에서는 이준문·김보현 광주시의원과 오광교 광주 서구의회의장 등 서구 갑 지역구 지방의원 3명이 이날 민주통합당 중앙당의 원칙 없는 공천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무소속 조영택 후보를 뽑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지도부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그들의 눈에는 광주도, 당원도 없었다”며 “지방의원으로서 당원으로서 중앙정치의 황포와 오만을 목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두터운 지역 조직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광주 서구 갑 선거구도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4·11 총선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 상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연대통합진보당의 정책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야권 전반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격을 전격적인 색깔론이라고 일축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관련,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총선거인수가 4021만3482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중 주민등록자는 4012만7104명이고, 해외 영주권자 중 국내 거주신고 재외국민이 6만6442명,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자 국내 거주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1만9936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다시 영그는 ‘고흥의 꿈’

### 10월 나로호 3차 발사 준비 순조 나로우주센터 막바지 점검 작업

오는 10월 ‘나로호(KSLV-1)’ 발사를 앞둔 고흥이 우주를 향한 꿈에 부풀어 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공우연)이 페어링 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발사허가심사위원회가 발사허가 심사에 착수하는 등 국내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3차 발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항공우연에 따르면 지난 21일 그동안 1차 발사(2009년 8월)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위성을 덮고 있는 페어링 분리방식을 고전압 장치에서 저전압 장치로 변경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발사 원인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러시아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러시아가 발사 실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비행종단시스템(FTS)을 끄게 된다.

FTS는 발사체가 날아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연료통을 찢어서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다. FTS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발사체 경로를 고려해 ‘안정 반경’을 넉넉히 계산해 발사하기 때문에 실패, 실패하더라도 미가 등에 피해는 없다는 게 항공우연 측의 분석이다.

또 지난 9일 발사허가 심사위원회가 발사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했고, 항공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사허가증을 발급하면 행정적인 절차도 마무리된다.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발사대시스템, 추적레이더, 원격자료수신장치, 기상레이더, 발사통제장비 등을 갖춘 이곳은 실질적으로 발



지난 2010년 5월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나로호(KSLV-1) 시험모델이 2차 발사를 앞두고 테스트를 위해 기립해 있다.

사체를 쓰아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발사체의 궤도를 찾아 비행안전 영역에서 벗어날 경우 비행을 멈추게 하는 것도 나로우주센터의 몫이다.

최근 나로우주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2010년 6월 2차 발사 실패 후 사용하지 않았던 이들 장비들을 점검하고, 시운전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발사가 임박해지면, 나로우주센터 관계자들이 수송레이더를 배에 싣고 필리핀으로 이동해 발사 당일 발사체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항공우연은 29일 언론관계자들을 초청해 나로우주센터와 나로호발사 현장 등을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연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 English

현재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활영어배워요!**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육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여행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택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 특징 3** 연수생 안전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한뉴문화교육센터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일차 관리한다.
- 특징 4** 연수비용 최소화! 국내 최저가!  
올해로 내번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광주일보가 지역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현지 연수기관과 직접 교류로 연수의 품격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 했다. ●항공료 포함 408만원

| 연수기간 | 2012년 7월 26일 ~ 8월 23일(4주)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교  
| 연수대상 | 초등 3~6학년, 중학생 1~3학년

| 연수인원 | 선착순 50명  
| 신청마감 | 2012년 4월 4일  
| 문의 | 062-220-0555 · 018-693-6604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뉴문화교육센터

## 올 수능 11월 8일...영역별 만점자 1%

올해 11월8일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특별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상 중요 내용은 이미 나왔더라도 다시 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출제방향이 영어·영역 등 전체적인 틀도 유지된다. 영역별 만점자 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성태재 평가위원장은 “전년도와 거의 다르지 않은 수능을 안정적으로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출제방針”이라며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

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별 만점자가 전년도와 같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교재 및 수능강의에서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고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활용 등을 통해 EBS 연계율을 지난해처럼 70%로 유지한다. 영역별 출제 방향과 범위는 지난해와 같다. 언어·외국어 영역은 범교과 소재를 활용해 출제된다.

이과학생이 주로 보는 수리개념은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각각 7~8문항씩 총 30문항이 출제된다.

문과학생이 주로 보는 수리내용은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각각 15문항씩 출제된다.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8월 22일~9월6일 실시된다. 개인별 성적은 11월28일 통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이영혜씨

내년 9월 열리는 제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6일~10월27일)의 총감독으로 이영혜(59·여)씨가 선임됐다. <관련기사 12면>

(재)광주비엔날레는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회의실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이씨를 내년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이 선임 총감독은 홍익대 응용미술

학과를 거쳐 1980년 월간 ‘디자인’ 발행인을 지낸 뒤 전문 디자인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 ‘월간 위경우먼’

등 다수의 월간지를 창간하는 등 디자인 문화 진흥과 확산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10개의 월간매체·단체를 발행인을 맡고 있는 ‘문텐즈 미디어 기업가’다.

지난 1994년부터 디자인하우스를 설립,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매년 주최해오고 있으며 2002년에는 ‘서울 디자인페스티벌’까지 병행해 주최하고 전시·기획을 총괄하는 등 디자인의 산업화와 공공성을 연계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학부 (062)605-1114